

제 5 장 사도행전 Tape #8094

우리가 성경을 따라 여행하는 중 5 장까지 왔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엄청난 열심이 있었으나, 가끔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식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는 것에 관해 증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영향을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들의 흥분과 열심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잠시 후에 오신다는 기대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팔았을 것이고, 교제에 참여했을 것이기에, 그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일종의 지역사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쓸 것을 교회에서 받았던 것이죠.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실행하고 싶었던 공산주의 형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도했다는 어떤 지시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되어진 강력한 것들 때문에, 단지 열심이 일으킨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흥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요구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격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자유롭게 행해진 것일 뿐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언제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모든 것을 공동출자하자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발전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 5 장에서 우리는 그 첫 번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4 장의 끝 부분에 보면, 땅과 집들을 소유한 자들로 인해 어떻게 아무도 모든 것에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팔아서 돈으로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두었고, 그의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분배했습니다. 바나바가 그의 땅을 팔아 어떻게 돈을 가져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 절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 이것은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도 모든 목사가 찾고 있는 그런 부부이지 않을까 합니다. 잘 입었고, 심중팔구 사람의 소유를 표현하는 유명한 상표로만 차려 입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면, 목사는 그 부부는 멋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여기에서 그들과 교제를 잘 이루기를 원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2 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니,”**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에 비밀리에 관여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아내도 그 일에 은밀히 관여하더라 그가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3 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노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 아니며 판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두었느냐? 네가 사람에게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 하니,”** 그의 땅을 팔도록 요구되지 않았음을 노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것은 요구사항이 아니었으며, 당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땅을 팔았다고 해도 그것을 반드시 모두 가지고 와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부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선했기 때문에 죄였습니다. 전부 가지고 온 것처럼 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따로 둔 것이죠. 그것은 박수갈채를 원하는 것이요,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주저하고 있었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눈가림하여 칭찬을 듣고픈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권능을 가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나도 그것에 일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능력을 위해서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초대교회의 권능을 가졌다면, 이렇게 서서 노래했을 것입니다. 내 삶을 취해, 주, 당신께 바치게 하소서. 내가 억제했을 적은 돈이 아니라, 내 은과 내 금을 가져가라고 말하는 세 번째 절 뒤에 서 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마도 그 절 뒤에 영 안에서 또는 영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선, 오랫동안 교회를 괴롭혔던 지독한 악입니다. 당신은 아니라는 어떤 것인 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탄생과 함께, 여기서부터 위선을 엄격히 다루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위장했으나, 분명히 그들 부부의 동의 아래에서 뒤로 빼돌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베드로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실행하여, 아마도 분별을 한 것이라 보는데,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촉구했습니다. 실체는 뒤로 감춘 것이 있었는데도,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위장의 이 일을 행하려고 했을까! 베드로가,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한 것이야! 라고 말했음을 노트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 말이죠.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신성의 삼위일체의 세 위 중에 하나이지요.

5 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이 점이 당신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빠르게 시험할지 나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음 내게는, 그가 망령 또는 영을 포기했다라고 표현한 그의 죽음의 대목이 흥미롭습니다[역자주;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볼 때]. 이것은 죽음에 대한 성경적 정

의 중에 하나입니다. 영을 포기하는 것, 의식이 몸을 떠나거나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오늘날의 의학적인 정의도 흥미롭기는 마찬가지죠. 몸으로부터의 분리가 있을 때, 뇌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사람이 혼수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그 사람에게 생명 연장을 위한 장치를 사용하는데, EEG(Electroencephalogram, 역자주; 뇌전도) 탐지기를 연결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혼수상태일지라도 여전히 뇌가 기능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계기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하여 작은 바늘을 삽입합니다. 그는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선이 평평하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이 생명보조 장치에 의존합니다. EEG 곡선 상에 선이 평평하게 되면 생명보조 장치를 떼고, 그의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뇌가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역시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의식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고 있다면, 성경은 당신이 죽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만약 사람이 단지 즐거움만을 위해 산다면, 아직 그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몸의 기능 모두- 숨쉬고, 생각하고, 노래하고, 모든 일절 -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 당신의 의식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삶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대로 당신은 죽은 것이고, 성경이 근심하는 대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보다 진짜 더 나쁜데, 그것은 육신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 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분을 두려워하라(눅 12:4-5)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 못에 던져질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분께서 불법과 죄로 죽었던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분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그 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당신의 죄가 그 분과 당신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 죽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현존의 의식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을 포기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6절 “짧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써서 나가 묻으니라.”** 자, 이스라엘에서는 향 재료를 사용하여 장례하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매장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당일에 처리됩니다. 그들은 향 재료를 넣는다든지, 깨어있는 것처럼 처리하는 등의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같은 날 매장합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것이 있죠? 사실 그들은 그의 가족도 찾으려 하지 않았고,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는 죽자, 그들은 단지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 매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7절 “세 시간쯤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삼비라인데,)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매,”** **8절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이니이다 하매,”** **9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10절 “곧 그녀가 베드로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이에 짧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매어다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11절 “은 교회와 그 일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진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을 정신 차리게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순결이요, 능력의 결과입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매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있고,” 교회는 성전 안에서 일종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곳은 아주 큰 공공 장소였기에, 그래서 솔로몬의 주랑에서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13절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그들에게 가담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이는, 그 후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아주 좋다고 하지만, 당신이 아는 대로, 교회에 참여하는 것만은 원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돈을 가져오는 그런 종류의 공산생활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져다 놓은 돈을 여전히 분배하는 일을 했으나, 뒤에서 다음 주에 볼 6장에서는 다른 문제로 발전됩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성령님에 의해 지시되었든지, 또는 주님께서 하신 일로 매우 흥분하여 열심이 있는 자들에 의해 되었든지, 혹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그 길로 반응할 준비를 했다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질문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만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치료하셨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가족 안에서 실제로 일하실 때, 사람들은 만져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마약에 깊이 빠져 차라리 그것으로 점심을 대신한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만한 사람이 갈보리 채플에 있었습니다. 그는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받았고, 사실, 오늘 그는 갈보리 채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친은 매우 부자였는데, 그가 전화로 약속하고 내게 왔습니다. 그는 수표책을 꺼내면서, 얼마나 원하느냐? 고 물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반응했으나, 그는 다시 묻기를, 얼마나 필요하냐? 고 했습니다. 다시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자, 그는 교회에 필요한 것을 해주기 원하는데, 그것이 얼마면 되겠느냐? 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세요, 나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 보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드릴 마음을 주셨다면, 당신이 알기 때문에 내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대단히 흥분합니다. 그 사람은 그의 아들 안에서 변화를 보았고, 그것에 대한 큰 스틸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그의 감사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형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감사를 보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나 지시하신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움직임[흐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잘 풀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위해 구호금을 가지고 가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재정적 재앙으로 몰아갔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14 절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니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더라)”** 이 일을 마치 천둥이 없는 번갯불과 같았고, 진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흥분이 있었으며, 남과 여의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15 절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상과 잠자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모든 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리를 지났을 것인데, 그들은 그가 옆을 지날 때 그림자가 그들의 위를 덮도록 자리를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는 믿음의 원리가 있다고 믿는데,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믿음은 능동적이기보다는 매우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수동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날에 그것을 할지 모른다는 것인 반면에, 능동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도록 우리의 믿음에 일종의 방아쇠를 당겨야 할 것들이 수도 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병자에게 손을 얹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그들은 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당신의 손을 얹는 것으로, 또는 치료의 능력이 전이되므로 어떤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알지만, 내가 치료의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름을 바르므로, 그들에게 손을 얹으므로,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방출하는 지점을 주는 것입니다. 손이 그들에게 얹혀지면, 그들은, 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을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손을 얹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간 뒤에 가서 그에게 가 볼 것인데,] 에베소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때, 땀을 닦을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일을 끝나치면, 그들은 그 땀 닦은 것을 건네받아 버렸거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찢어 버렸을 것이지만, 그들이 바울의 땀 뉘는 것을 가지고 가서 병든 자의 그 위에 내려놓고, 그들이 나음을 입게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그 도구를] 그림자로 했는데, 사람들이 그가 거리로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있던 곳을 바라보고, 그가 지난번에 여기를 걸어갈 때, 그의 그림자가 나에게 떨어질 뻔했다며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덮이기만 하면,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방출하는 접촉점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마치 그 여인처럼, 눅 8:41-48 에 보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여인은 그 분의 옷 가를 움켜쥐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지느냐? 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웃기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라며 되물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떠밀고, 또 떠밀렸다는 의미겠죠. 주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당신에게 손을 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떠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대답하시면서, 나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인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뛰어 와서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12 년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만약 내가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댈 수 있다면 나는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손을 대는 순간, 혈루증이 멈춘 것이죠. 그것은 믿음을 방출할 접촉점이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분에게 손을 댄 순간을 압니다. 믿음이 활성화 되었고, 믿음이 활성화 되므로 그녀가 치료된 것입니다. 자, 그녀는 다른 많은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아마 그녀는 그 분께서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으로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분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 나는 치료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을 걸어 다니며, 예수님의 눈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믿음이 방출되어야 했던 지점에 대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믿음이 방출된 지점을 창조했습니다. 그림자가 떨어지는 순간, 거기에, 나는 치료됩니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에, 오늘날에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믿음은 ‘형제 치료자’가 나에게 손을 얹는 그 순간을 믿을 수 있도록 치료자를 믿는 믿음들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그들이 이것을 세웁니다. 자, 맞다, 틀리다를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음이 역사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을 하고, 구원을 가져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치료를 가져오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목회의 아주 초기에 내가 투산에 살고 있었을 때, 20 대 초반이였을 것입니다. 이 작은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바로 이웃집에 잰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인이 공군기지의 지휘관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품위가 있는 부부였고, 그들의 차고 길과 나란히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당신의 차고 길이 이웃과 나란히 있다면, 당신은 그들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그들이 심리학 공부를 했다는데, 아마도 당신이 사는 곳과 당신의 차고길 등등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친숙하게 되고자 하는 이웃과 사실 당신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이웃들과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당신의 차고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고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짐은 코넬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고,

예비군으로 봉사하며, 실무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들은 금발의 세 딸이 있었고, 나 또한 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알다시피, 뭐하세요? 예, 나는 목사입니다, 알다시피. 오, 그와 같은 것으로 질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루 저녁 내 아들 척 주니어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의 대변에 피가 보였답니다. 그 때가 주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고 없었어요. 아내 케이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켄이 와서 의사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케이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반응했습니다. 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말을 강력히 추진하며, 아시겠죠? 당신은 그를 의사에게 보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 아들은 동네 아이들과 뛰놀며 보냈습니다. 켄은 그 아이가 좋아져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불러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그것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켄과 복음을 나누었고, 그 날 그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예,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주님을 영접한 것이지요. 음, 그녀의 남편이 불가지론자였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남편과 나눌 수 있는 정확한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기 위해 정확한 시간과 분위기 등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인 짐이 그 날 저녁 비행장에서 돌아오자, 딸들이 들어와 주위에서 뛰놀며, 옆집의 척 주니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저녁에 엄마가 아빠에게 말해 줄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라고 하자, 짐은 아내에게, 내가 집에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소, 여보?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켄은 남편과 나누게 되었고, 결국 짐은 우리 둘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책을 한 권 권해 주었는데, 그것은 헨리 모리스가 최근에 써낸 ‘당신이 믿을 것’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짐은 그것을 읽기 시작했고, 다 읽을 때까지 결코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나를 방문해, 내가 새벽 2 시에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다면, 당신에게 흥미가 있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다 읽고,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지요.

그가 알라스카로 이사를 가고 나서, 나중에 그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편지 한 통을 나는 받았습니다. 그는, 척,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자녀들은 이 땅에 재앙이라고 말하곤 했으며, 내 자신의 어린 딸들도 싫어했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들이 내게 다가오도록 기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단지 떨어져 있는 것만도 무섭습니다. 오,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켄은, 아니 그 당시 투산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봅니다. 천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완벽한 냉방장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투산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천식을 가졌다고 봅니다. 켄은 외향적인 사람으로, 뒷담 넘어 살고 있는 처녀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그 처녀에게 작은 분사기를 꺼내주고 싶었을 만큼 그녀도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켄이, 보세요,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옆집에 사는 분이 설교자인데, 그 분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만 하면 그들이 치료돼요. 그러니,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집으로 건너오세요. 내가 그를 찾아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잰은 나를 방문하여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서, 그 처녀를 위해 기도했

고, 하나님은 이 여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잰은 이웃에 있는 모든 천식 환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지금 막 나의 여자 친구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는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을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병원에 가지 말고 내 집으로 먼저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말입니다. 그 친구는 그래서 왔고, 잰은 나를 방문해, 우리는 그리로 가서, 기도했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후, 그녀가 의사한테 가니, 그들은 그 여자에게 다른 여러 검진을 해본 후, 말하기를, 당신 이제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즉, 당신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내가 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의 믿음으로 된 것은 아니고, 완전히 잰의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잰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에, 그녀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만 해도 그들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사람들을 세웠을 것이고, 우리 이웃 모두의 천식이 치료될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신망을 주려고 하나, 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것은 나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잰에게 엄청난 믿음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덮이자, 예상과 기대와 믿음의 방출이 있었습니다. **16 절 “주변 여러 도시에서 나온 무리도 예루살렘에 이르러 병든 사람과 부정한 영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고침을 받으니라.”** 이것이 바로 계속되는 능력 베풀어지심입니다.

17 절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곧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사두개인들은 물질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을 믿지 않고, 또 천사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물질주의자들입니다). **“다 분노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킹 제임스에서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등,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보며, 질투했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질투를 하고, 분노도 했습니다. **18 절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붙잡아다가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19 절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20 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 하되,”** 천사가 감옥을 부수어 버리는데 어떻게 도왔는지를 생각하면 흥미롭습니다. 다른 경우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약간 뒤쪽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인데,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손을 펼치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이고서, 그것으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서 신발을 동여 메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를 빠져나가야 한다면서 천사는 베드로를 인도했습니다. 문들은 저절로 열렸고, 천사는 베드로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약간 다르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특수한 패턴으로 묶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우, 그 분은 감옥을 흔드셨고, 벽을 흔드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회심을 이끌어 낸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대단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벤추라 카운티에서 살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남쪽 카운티 가스회사의 판매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죠. 나중에 부동산 중개인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벤추라 카운티 교도소에서 목사와 같은 일을 했는데, 이는 매 주일 그곳에 가서 거기

죄수들을 위하여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일에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하셨는가를 가르쳤습니다. 음, 그 다음 주일에 가족들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 아주 말쑥하게 차려 입은 사내 하나가 우리들의 차에까지 다가와, 가족들을 위하여 차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전에 그를 본 적이 없었으나, 그는, 당신이 스미스씨 입니까? 라고 인사를 했고,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꾸하자, 그는, 당신이 감옥에 들리곤 하죠? 라는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요? 라며 반응하자, 그는, 오늘 아침 당신과 함께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지금 교회에 온 것입니다 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접대의 은사도 있었기에, 교회 예배 후 저녁식사를 위해 우리의 집으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 사내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은행을 털 이야기 등 많은 종류의 경험을 말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이 부서져 주요 죄수 중에 몇이 그곳을 빠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눈을 크게 뜨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거기에 앉아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위해 차고에 방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동안 그는 우리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런 뒤, 그 사람은 샌디에고로 갔습니다. 이 지역은 그가 집을 떠나서 간 지역이었고, 나의 아버지는 그가 여러 주의 감옥에서 탈옥한 경험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세리프(역자주, 주정부 경찰조직)에 가서, 세리프 당국에게, 이 지미 레이놀드에 대해 알고 싶은데, 그를 놓아 준 이유가 무엇이요? 라고 묻자, 세리프 당국자는 말하기를, 스미스씨, 그것은 우리의 실수였소. 재정관이 카드에 기록할 때, 만약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죄수가 있으면 오른쪽 상단에, 우리는 ‘보유’라는 글씨를 기록하여 표시하곤 하는데, 그 당시 그 재정관의 판단에 거기 상단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 위치를 바꾸어 저 하단에다 그만 글씨를 기록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카드들을 쭉 볼 때, 미처 그 하단에 ‘보유’라는 글씨를 주의해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래 구석에 있던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를 풀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었던 지난주일, 즉 나의 아버지가 거기에 왔었을 때, 지미는 자기가 뒤쪽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나가지는 못했지만, 당신이 이야기한 내용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당신이 떠난 뒤에야 나는 그것에 대해 알았죠. 작은 그룹의 모임에서 바로 옆에 앉은 사람에게, 여보게, 아까 그가 이야기한 것을 들었소? 라고 물었더니, 그 동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했다고 내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내는, 음, 내가 많은 감옥을 부숴 보았지만 이 감옥은 좀 새로운 곳이야, 거래를 해 볼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물어보세.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내보내주시면, 다음 주일에 그 사람의 교회에 가겠네! 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인 다른 한 사람은 허츠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는 술중독자로서, 판사가 그에게 검사를 받도록 결정했으나, 그만 판사가 누그러져, 수요일에 와서 그의 형량을 바꾸었다고, 허츠에게 말해 주어, 그는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자, 그들은 서둘러 방문하여, 이름을 부르며, 지미 레이놀드, 옛! 사무실에서 보고한다! 너는 자유의 몸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많은 다른 방법들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감옥이 흔들려서 나왔고, 베드로는 그냥 천사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그 밤에 감옥의 문을 열어 주었고, 그를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이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이 삶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21 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라.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 절 “그러나 관원들이 가서 보니 그들이 감옥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돌아와 고하여,” 23 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참으로 감옥은 매우 안전하게 잠기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 앞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나이다 하매,” 24 절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수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염려하여 이 일이 어디까지 커질까 하더라.” 그들은 이 일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 염려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할 것인가?

25 절 “그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고하되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매,” 26 절 “그 경비대장이 관원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데려왔으나 폭력을 쓰지 못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그들을 들로 칠까 봐 두려워하였음이라.” 27 절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28 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그가 말한 것을 노트해 두세요. 첫째는 당신의 교리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증언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로 도시에 가득 차게 했습니다. 엄청난 고발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고발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재판관 앞에 가져갔고, 고발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로 산타아나시를 채웠거나, 오렌지 카운티를 채웠다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그것은 옳습니다!

둘째는 당신이 우리 위에 이 사람의 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마 27:25 로 가보면, 빌라도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공평하지 못한 심판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로마인의 지각은 위반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대야를 가져오게 하여, 공개적이며 형식적으로 그의 손을 씻었습니다. 즉 그는, 보라! 이 사건에 대해 나는 손을 씻노라,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결백하노라, 나는 너희가 이것을 보기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외치기를,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있소! 음,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없으소서라고 말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29 절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단어는 ‘반드시 ...을 한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30 절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31 절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 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앞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지난 장에서, 첫 번째 체포되어 죄상을 묻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관원들과 총독에게 끌려갈 터인데,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왕과 모든 사람 앞에 가더라도 미리 말할 것을 취하지 말라, 그 시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할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증거를 위하여 당신에게 오실 것입니다. 혹은 증거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판관 앞에 설 때마다, 그들은 그렇게 증거를 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또 그도 재판장에 있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나를 보세요. 매번 그는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만, 알다시피, 그를 돌아서게 한 것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복음을 나누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에게 증거를 칭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증거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32 절**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33 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니,” 그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을 가야할 자로 결정했습니다. **34 절** “그 때에 율법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는 가말리엘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공회 안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잡시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은 율법학자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명예 중에 한 부분에서, 예루살렘, 거기서 학교에 다니며,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 있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학생이었던 말이지요. **35 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스스로 조심하라.” **36 절** “이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같이 자랑하니 약 사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직접 가담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고,” **37 절**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한즉 그의 말을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졌음이니라.” **38 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는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없어질 것이로되,” **39 절** “만일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될까 염려함이라 하니,” 지금 이것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 공회의에 있던 사울은, 현명한 충고를 하는 그의 교수의 말을 들으면서, 교회를 깃뎌 없애고, 대항하여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핍박하고, 신성모독으로 그들을 몰아가고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마침내 다마스쿠스 길에서 멈추어 서게 하고서, 그 분은 말씀하시기를, 가시채찍을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 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가말리엘이 말한 것에 대해 수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때리고,” (당신이 보다시피, 가말리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명령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놓아

주니라.” 41 절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 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한 것으로 당신이 맞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아마도 두고 갔을 것이고, 아마도 그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두 번 다시 그것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오, 주님, 당신 때문에 수치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군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멈추게 하나요? 음, 당신은 못합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으름장을 놓거나 매로 때리는 것으로, 당신이 그런 사람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42 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멈출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6 장으로 가는데, 내가 말했지만,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공동생활을 시도하여 일어난 문제들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선과 겉치레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시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주님,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필요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주님, 당신을 대항하여 싸우려는 어리석음의 죄책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복종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일들을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고 간구합니다. 아멘!